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지부교섭 속보 2호

2024.04.25(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2차 지부교섭_ 요구안 설명]

노사 자율로 상생하는 교섭 만들자

노조 요구안 설명

4월 25일(목) 14시 30분 보쉬에서 2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이 날 교섭은 노조 요구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성훈 지부 사무국장은 통일요구안 2가지, 중앙교섭 요구안 2가지, 지부교섭 요구안 3가지를 설명했다.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음 교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자율로 상생하자

권현구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으로 교섭이 쉽지 않다. 노사자율로 상생하는 교섭됐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노조탄압 정책을 비판하며 원만한 교섭을 당부했다.

올해 금속노조 요구안은 좋은 일자리 창출, 노조전임자 축소 등 정부의 노조탄압 정책에 대한 노사 공동 선언,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임금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적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안 상세 내용은 추후 교섭에서 다룰 예정이다.

리텍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리텍이 경영상황을 빌미로 단협 개악,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부는 교섭위원 전체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리텍 사측 교섭위원은 지부교섭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노측 교섭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교섭위원과 회사 모두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올해 투쟁은 리텍을 향할 수밖에 없다.

2차 교섭 속기록

열린 마음으로 노조 요구안 경청해달라

사 : 공장 방문 환영한다. 좋은 기운 이어서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듣고 이해하고 한걸음 다가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노 : 올해도 윤석열정부 반노동 정책으로 교섭이 쉽지 않다. 상견례 때 말했다시피 노사 자율로 서로 상생하는 교섭되면 좋겠다. 오늘 요구안 해설 진행하겠다. 요구안 이미 서면으로 다 받아보셨겠지만 오늘 노조 요구안에 귀기울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요구안 설명>

통일 요구안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중앙교섭 요구안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1,080원 / 월 통상임금 2,504,080원)
지부교섭 요구안	임금인상 (월 기본급 159,800원)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 : 2~3번 정도 나눠서 질의응답 하겠다.

노 : 오전에 간사간 대화에서 교섭장소 순번에 대해서 차기 교섭 리텍에서 하자고 제안 드렸는데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 : 리텍에서 이번주에 지부 운영위도 했고, 내부적으로 할 일이 많다.

노 : 사유를 명확히 말씀해주셔야 논의 가능하다. 월요일에 운영위한 것도 그렇고, 다음 차수 교섭을 리텍에서 진행하려는 것도 왜 그런지 회사도 아실거라고 생각한다. 리텍 조합원들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해 지부 운영위원들이 공동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섭장소가 정 어렵다면 다음 교섭은 대한이연으로 하고 교섭장소 순번 정하자.

그리고 상견례 때도 얘기했는데, 한온이 2차 중앙교섭도 불참했다. 상견례도 그렇고 요구안 설명 때도 참석 안하면 중앙교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며 노측 교섭위원들 지적이 있었다. 한온이 어려운 점이 뭔지 지부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지회도 회사랑 소통이 잘 안된다고 한다. 지부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다.

사 : 중앙을 소홀히 한다는게 아니라 지부와 지회가 최우선이다.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을 부정적으로 반대한 적도 없다. 성실히 임하고 싶은데 일단 산적한 문제가 지부, 지회가 최우선이라 그렇다. 지회와 소통은 제일 먼저 해결하고 가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중앙교섭 참석 노력해보겠다.

차기교섭 : 5/2(목) 14:30 대한이연